

고등교육 정책소식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발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하 '대교협')는 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발표하였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2011학년도 기본사항을 수립함에 있어서 입학업무의 안정적 진행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이를 위해 2010학년도 기본사항과 큰 틀 속에서 내용적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해 작년 말 T/F팀을 구성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세미나, 설문조사, 공청회 등 수차례에 걸친 공개적인 의견수렴의 과정과 유관기관과의 협의, 그리고 2회에 걸친 "대학입학전형실무위원회"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09년 6월 24일(수)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였다.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고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고등

교육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정기관심의위원회(위원장 이준승 KISTEP 원장)'의 심의를 거쳐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26호)」을 관보에 고시하였다. 이번 고시는 「고등교육법(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에 따라 평가·인증기관 인정에 필요한 세부기준(평가·인증기관의 조직·기구 및 인력,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및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별도로 인정기관 지정 신청공고를 하여 9월부터 인정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인재기획분석관은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에 대하여 '정부인정'이 추진될 경우 평가·인증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도가 제고되어 대학의 외부 평가·인증결과에 대한 자발적 수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09년 2학기 학자금 대출 평균금리 2.9%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2학기 학자금 대출을 평균금리 2.9%로 200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고 발표하였다. 금년 2학기부터 기존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던 대출 방식에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장학채권을 발행하여 직접 대출을 실시하는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학자금대출 기준금리는 전학기보다 1.5% 인하된 5.8%이다. 그러나 학생의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어 학생들이 부담하는 평균금리는 2.9%까지 낮아진다.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확정된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2009년 7월 21일(화)부터 9월 29일(화)까지 2학기 학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입학사정관제 계속 · 신규지원대학 선정

대교협과 교과부는 「2009년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09년 7월 15일(수) 계속지원대학 23개교 및 신규지원대학 9개교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계속지원대학의 경우 2008년 선정된 40개 대학 중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15개교를 제외한 25개교 가운데 사업실적이 낮은 2개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23개교를 선정하였다.

건국대(총주)	건양대	경북대	경원대
경희대	공주대	목포대	배재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아주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조선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	홍익대	

신규지원대학은 선정평가를 거쳐 신청대학 총 46개교 중 약 20%에 해당하는 9개교를 선정하였다.

강남대	강원대	광주교대	광주과기원	단국대
부경대	성신여대	송실대	진주교대	

대학별 지원금액은 신청금액, 평가결과, 입학사정관 채용규모 및 입학사정관 참여전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조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선도대학에 이어 계속 · 신규지원대학 선정까지 마무리되면서 대학 입학사정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향후 대교협과 교과부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점검단을 구성, 선정된 대학에 대한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내용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입학사정관제 홍보책자 발간, 입학사정관제 홈페이지 구축, 대입상담 콜센터 개설 · 운영 등을 통해 학생 · 학부모에게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만 고등교육평가인증위원회, 세계대학 논문평가 결과 발표

세계 725개 대학들의 연구논문 평가에서 서울대가 85위, 연세대가 200위, 고려대가 238위에 각각 올랐다. 대만 고등교육평가인증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세계 725개 대학들의 연구논문 평가순위에서 서울대는 100점 만점에 21.76점으로 국내대학 중 최고점수를 얻어 종합순위 85위에 올랐다. 이어 15.04점을 얻은 연세대와 13.39점을 받은 고려대가 세계대학 가운데 200위와 238위, 국내대학 중에서는 2, 3위를 차지했다. 또 한국 과학기술원(KAIST)이 278위, 성균관대 312위, 포스텍 350위, 한양대 384위, 경북대가 419위, 부산대가 474위를 각각 기록했다. 대만 고등교육평가인증위원회는 각 대학의 논문 편수와 피인용 횟수, 영국 교육평가기관인 QS의 대학평가 결과 등을 참고해 국내대학 9개를 포함한 725개 대학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1998~2008년 논문 수와 피인용 횟수 등 8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했다. 서울대는 이 위원회의 평가에서 2007

년 107위에 오른 뒤 지난해 84위로 상승했다가 올해 1단계 하락했다. 연세대는 2008년 239위에서 올해 39단계 올라갔으며, 고려대도 2007년 329위, 2008년 287위에 이어 올해 상승세를 이어갔다. 항목별 순위를 살펴보면 서울대는 과거 11년간 논문 수와 2008년 한해 논문 수에서는 각각 33위와 24위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11년간 연평균 피인용 횟수에서는 442위를 기록했다. 연세대는 작년 논문 수에서 89위, 최근 2년간 피인용 횟수에서 186위를 기록했지만 역시 11년간 연평균 피인용 횟수에서는 455위로 비교적 낮았다.

전 세계대학 중 종합순위 1위는 96.14점을 얻은 하버드대였으며, 존스 홉킨스대(2위), 스탠퍼드대(3위), UC(캘리포니아대)버클리(8위), 예일대(16위), 듀크대(18위), 코넬대(19위) 등 미국 대학들의 순위가 높았다. 아시아에서는 도쿄대가 14위로 가장 높았고, 교토대 28위, 오사카대 35위, 싱가포르국립대 93위, 칭화대 144위, 베이징대 147위, 홍콩대 185위 등 분포를 보였다.

한양대, Honors Program 시범대학 선정

교과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창의적 글로벌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우수 이공계 학부생 대상으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Honors Program의 시범대학으로 한양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한양대는 2009년 하반기 운영 준비를 거쳐 2010년부터 4년간 Honors Program을 시범 운영하게 되며, 정부는 2009년부터 연 5억 원 규모로 총 25억 원을 지원하고, 한양대가 39억 원 규모로 매칭 투자할 예정이다. Honors Program 사업은 지난 2009년 2월에 공고, 5월 말까지 접수한 결과, 총 5개 대학이 지원하였으며, 6월에 교육계 및 이공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다단계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의 특성화 및 이를 위한 대학의

시스템 개선, 지원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범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한양대를 선정하였다. 한양대는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등 이공계 분야 단과대학 공동으로 Honors Program을 운영할 계획이며, 대학 자체의 강점을 살리면서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자체 평가 및 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꾸준히 향상시킬 예정이다. Honors Program의 도입 및 운영을 계기로 그간 우수 학생들의 유치에만 열중하고, 교육의 내실화는 소홀히 했던 대학들이 학부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변에 선정된 한양대의 Honors Program 시범 운영을 통해 국내 운영 모델을 검증·개선하고 다른 대학들로 확산할 것이며, 이는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의 확대 등 입시 선진화와 함께 교육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그간 지적되어 왔던 우리나라 대학 학부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에너지 학술 지원 대학 선정

국토해양부(장관 정중환)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을 견인할 해양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논문 지원 사업”대학으로 포항공대, 원광대, 관동대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2008.9)의 일환으로서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과 「우수논문 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우수논문 지원 사업”은 5개 해양에너지(조력·조류·파력·해수온도차·해양바이오) 분야의 기초·기반기술에 대한 대학의 학술연구 활동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240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배출된 인력이 성장하고 있는 해양에너지 산업의 부족한 인력수요를 충족할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해양에너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교협, 2010학년도 수시모집 주요사항 발표

대교협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전국 194개 4년제 대학(교육대, 산업대 포함)의 「2010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발표하였다. 이번 「2010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주요사항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0학년도 학생선발부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대입전형 실시로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을 주었던 수시1학기 모집이 폐지됨에 따라 고교 교육 내실화에 기여, 둘째, 수시 모집인원이 금년도 모집인원(384,659명)의 59.0% 선발로 증가, 셋째, 입학사정관을 통한 모집인원의 증가, 넷째, 대학 변경 및 전환(김천전문대가 김천대로 변경, 충주대가 산업대에서 일반대로의 전환)이다. 201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주의할 사항은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교협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2008년 우리나라 SCI 논문수 세계 12위

교과부가 2009년 8월 24일(월) 과학기술논문색인인 SCI(Science Citation Index) &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의 NSI DB를 분석한 결과, 2008년도 세계 총 논문 수는 1,158,247편이고, 우리나라의 SCI계제 논문 수는 35,569편으로 186개국 중 전년대와 동일한 12위로 나타났다.

SCI 논문 발표수 세계 상위 5개국은, 미국, 중국, 영

국, 독일, 일본이며 상위 5개국의 논문 수 합(711,680편)은 국가별 논문 수 합계(1,467,237편) 중 절반에 가까운 비중(48.50%)을 차지하고 있다. 논문발표 수 상위 12개국 중 대부분의 국가들이 순위변동이 없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30.3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분야별 논문발표 수를 보면, 총 22개 분야 중 재료과학(4위), 컴퓨터과학(8위), 공학(8위), 미생물학(8위), 약리학(8위), 물리학(9위), 화학(10위) 등 7개 분야의 논문 수가 세계 상위 10위권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SCI 논문의 5년 주기별(2004~2008)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3.28회(세계평균 4.62회)로 전년도(3.10회) 보다 5.8% 증가했으며, 순위도 전년도 31위에서 30위로 상승하였다.

국내 대학의 대학별 논문 수를 살펴보면, 서울대(1위), 연세대(2위), 고려대(3위), 성균관대(4위), 한양대(5위)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인용수 순위 또한 논문 수 순위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교수 1인당 논문 수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5.24편으로 가장 높았으며, 포스텍, 카이스트, 서울대, 성균관대 순이었다. 500편 이상 SCI논문을 발표한 국내 대학은, 총 24개교로, 이들이 발표한 논문수 28,305편은 우리나라 전체 발표 논문 수(30,536편)의 9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 연구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논문 1편당 피인용도는 30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향후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정부연구개발 지원시 연구기관의 실질적인 연구성과 제고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개발 지원시 논문, 특허 분석 등 선행조사를 강화해 특새 분야 연구성과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한 분야는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